

티끌 모아 태산

① 손봉호 (대표주관)

다른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별 관심을 쓰지 않지만 오래 살다 보니 많은 가정들을 알게 되었다. 하나 하나에 찍는 것은 그들 대부분의 흙흙이가 우리 집보다 험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들 가운데는 경제적 으로 좀 어려운 집도 있어 안타깝다.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아끼며 산다. 여름에 냉방기를 틀지 않고 겨울에도 줄 줄게 산다. 외식을 자제하고 하더라도 비싼 것은 피한다. 내 돈으로는 카피숍 카피를 마시지 않고 비상상황이 아니면 호텔 음식을 먹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약하고 빗물 통을 설치하여 지하수도 아낀다. 40년이 넘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50년 전에 산 남방셔츠를 아직도 입는다. 30분만 안 써도 컴퓨터를 끄고 진 기기구의 플러그의 스위치를 닫아 잘 때는 반드시 전기를 끈다. 프라이드를 물고 다니며 긴 장지신호등 앞에서는 엔진을 끈다.

나의 이런 절약정신은 우선 어릴 때의 경험에서 생겼다. 어려웠던 시대를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한 번도 돈을 턱턱하게 가져본 적도, 써본 적도 없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름으로 쓰기 위하여 길에 떨어진 소풍을 주우려 다녔다. 어머니는 “돈을 쪼개 쓰라” 하셨다. 민원짜리를 쪼개면 2만원이 된다. 즉 2만원의 효과를 낸 만큼 민원을 아껴 쓰라 말씀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보낸 8년의 세월이다. 그 나라 국민은 전 세계에서 구두쇠로 유명하다. 아무리 부자라도 사과를 껌째로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 대학 구내식당에서 한 번 돈을 내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 남은 음식을 화난 친구가 먹는 것을 보았다. 음식 남기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친구의 집에 초청받아 하루 밤 자는 데 영하의 온도에도 난방을 하지 않아 양복을 입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들어 간 적도 있다.

그렇게 아껴봤자 큰돈이 모일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나는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을 믿는다. 평생 그렇게 절약하니 교회 헌금과 기부금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더라. 결혼 후 첫 번째 집을 지은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빚을 지 본 일이 없다. 그리고 그 빚도 인간됨을 다 쓰고 철저히 절약해서 일러 갚았다. 나는 빚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 나 개인, 우리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대표로 있는 기관도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도록 한다. 이자-돈은 버리는 돈과 너름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철학을 나무란다. 모두가 그렇게 살면 자본주의 경제가 기릴한다고 한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므로 그렇게 지독하게 아끼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제는 왜 유럽에서 가장 탄탄하고 풍영 풍영 소비 잘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경제는 왜 휘청거리는지 모르겠다. 소비가 미덕이란 말은 아직 실증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주로 아끼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부자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자가 되면 돈에 비검할 필요가 없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거나 아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큰 장에 게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검소하게 살면 어느 정도 부자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검소하기 때문에 돈이 모이고 돈이 있어도 돈을 쓸 곳이 적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 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병이 날 수 있고 병이 나면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아끼는 방법이 훨씬 낫다.

내가 돈을 아끼는 것은 돈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모든 돈은 노동의 대가로 노동은 중요하고 신성하다. 나도 공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 유학 시절 대학이 제공하 는 장학금을 사절하고 조교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공부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돈은 장에 인처럼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만이 받을 권리가 있다. 나도 인플레이션 턱으로 짐 지을 때 진 빚을 쉽게 갚았지만 그것은 결코 긍정하지 못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열 심히 세금을 바쳤고 더 바칠 용의가 있다.



나는 돈을 아끼되 수전노(守錢奴)가 되지 않으려고 애쓴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써야 한다. 아들 결혼식 때나 장모 장례식 때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결혼이나 장례에는 부조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환경오염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재난이기 때문에 절제는 오늘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미덕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모두 노랑이가 되기 바란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특고세계번역출판협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임스테르르자유대학 교내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인데,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 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